

트렌드 & 스타일

'핑크걸'의 발칙한 패션 제안



고정관념을 깨라

원피스+민소매 티, 캉캉 스커트+스포티 티셔츠
"언밸런스 아이템으로 색다른 스타일 연출을"

누구나 옷장 문을 열어본 뒤 지난해 이맘때는 무슨 옷을 입었는지 고민해볼 경험이 있을 것이다. 특히 남성에게 비해 유행주기가 빠르며 바뀌는 여성들은 옷을 자주 구입해두고 아깝게도 무엇을 입어야 할지 고민이 된다.

옷이 많더라도 센스있게 연출하지 못한다면 '위스트 드레서'가 되기 십상. 반면 많지 않은 가짓수의 옷으로 수많은 패션 스타일을 연출하는 '베스트 드레서'도 분명 있다. 옷장에 가득 쌓인 옷은 많지만 정작 입을 옷이 없어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스타일에도 고정관념을 깨릴 필요가 있다.

최근 자신의 패션 노하우와 성공 스토리를 담은 '핑크걸의 발칙한 성공기'(정음·1만원)를 펴낸 의류소포몰 핑키걸(www.pinkygol.co.kr) 운영자 김소희 씨는 "같은 의상에 입을 센스에 따라 무궁무진한 스타일로 변신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언밸런스의 아이템으로 색다른 멋을 연출할 수 있는 '믹스 앤 매치'를 통해 이번 여름에는 패션 리더가 돼보자.

■ 대조적인 아이템을 매치하라

여성스러운 캉캉 스커트에 블루우스를 매치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조롭고 일관하다. 오히려 깔끔한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에 스니커즈를 활용하면 발랄함과 여성스러움을 더한다. 김씨는 "극과 극은 서로 통하는 성질이 있다"며 "화려하고 여성스러운 옷일 수록 스포티한 아이템이 잘 어울린다"고 설명했다.

■ 원피스를 원피스로만 입지 말라

튀니튀니해도 여름철 대표 아이템인 민소매 원피스. 시원하면서도 손쉽게 멋을 낼 수 있어 여성이라면 한 두벌 정도는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원피스 하나만 달랑 입는 것은 지나치게 '깔랑'해 보인다. 원피스 안에 민소매 티를 입거나, 원피스 위에 후드티를 겹쳐입고 레깅스를 신으면 색다른 멋을 연출할 수 있다.

■ 액세서리를 이용하라

벨트, 목걸이, 스카프 등 이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는

다양하다. 흰색의 민무늬 티셔츠, 청바지라는 단순한 의상에 예스니한 벨트를 걸쳐주는 것만으로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목걸이 역시 멋진 의상을 감각적으로 만들어주는 아이템.

렌즈 심심해보이는 의상에는 금이나 은소재의 평범한 목걸이보다는 비즈 장식이 주렁주렁 달린 화려한 액세서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여성스러운 니트나 블라우스라면 깔끔한 진주 목걸이를 걸쳐주는 것만으로 더욱 돋보인다.

스카프는 변신이 무궁무진한 소품. 어깨나 목에 두르거나 두건으로 사용할 수 있다. 허리벨트 대신 사용하기도 한다. 스카프를 목에 두를 때는 분위기에 따라 길이를 조절하도록 하자. 스카프를 길게 늘어뜨려주면 우아하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목에 칭칭감아 짧게 매면 발랄한 느낌이 든다.

■ 한 벌은 심심, 겹쳐입어라

무더운 날씨에도 여러 개의 옷을 겹쳐입는 레이어드 패션이 강세다. 민소매 티셔츠에 커다란 박스티를 레이어드한 패션은 시내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가격도 저렴하고 스타일도 다양한 여름이면 자주 입게 되는 민소매 티셔츠는 활용이 다양하다. 지금까지는 티셔츠 안에 민소매 티셔츠를 입었다면 한번쯤은 반대로 입어보자. 색상만 다르고, 동일한 디자인의 민소매 티셔츠를 레이어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네크라인이 서로 다른 티셔츠를 겹쳐 입는 것도 훌륭한 레이어드 패션이 가능하다.

■ 컬러로 승부하라

의류 코디에서 중요한 것중 하나가 '적절한 색상 매치'. 같은 옷도 어떤 색깔이나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색깔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느낌을 살려 옷을 입는 스타일에 변화를 줄 수 있다. 화이트나 블랙 등 무난한 컬러는 청바지나 단정한 스커트가 제격이다. 핑크나 블루 등 로맨틱한 색상은 주름 청바지나 두건을 매치해 발랄하게 표현할 수 있다.



'핑크걸의 발칙한 성공기'의 저자 김소희 씨가 직접 코디한 다양한 스타일의 여름 패션. 김씨는 벨트나 목걸이 등 액세서리를 이용하거나 원피스 위에 티셔츠를 입는 등 패션의 고정관념을 깨라고 조언한다.



'귀차니스트'를 위하여...

클렌징 오일·슬리핑 팩 등 다기능제품 눈길

가만히 앉아있어도 땀이 나는 무더운 여름에는 움직이기조차 귀찮다. 매일같이 화장을 해야하는 여성들은 물론이고 남성들 역시 귀찮은 마음에 스킨, 로션 등 기초화장을 빼먹기 일쑤다.

물 꾸미기도 귀찮은 '귀차니스트'를 위한 미용제품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남성들의 경우 스킨과 로션, 자외선 차단까지 한꺼번에 되는 다기능성 제품이 많다. 아모레퍼시픽의 '오트세이 스포츠', 에경의 '포틴 화이트프스' 등 한 번 바르는 것만으로 피부관리를 끝낼 수 있다. LG 생활건강의 '오취 포텐 식스틴 아쿠스 가드 로션'은 보습과 미백작용 및 자외선 차단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제품이다.



오취 16hrs 로션

이니스프리 슬리핑 팩

클렌징 크림으로 닦고 나서 폼 클렌징으로 2차 세안까지 해야하는 여성들의 귀찮음을 덜어줄 수 있는 제품도 나와있다. '클렌징 오일'은 대부분 유분으로 이뤄진 색조 화장을 깨끗이 지워주고 입술

이나 눈가 등 예민한 피부에도 사용해도 사용해도 깔끔한 클렌징이 가능하다. 500원짜리 동전만한 양을 손에 덜어 얼굴에 문지른 뒤 물로 씻어내기만 하면 된다.

칙칙하고 건조한 피부를 위해 '팩'을 하고 싶어도 바르고 떼어내고 다시 씻어내는 것이 번거로워 하지 못했다면 '슬리핑 팩(sleeping pack)'을 추천한다. 슬리핑 팩은 잠자기 전 얼굴에 바른 뒤 다음날 아침 씻어내기만 하면 된다. 랭콤의 레네르지 모포리프트 마스크는 바르고 자는 동안 피부 피로를 풀어주고 탄력있게 가꿔준다.

모발이나 몸매 관리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팬틴은 나이트 전용 모발 관리제 '팬틴 나이트 미라를 트리트먼트 오일'을 선보였다. 자외선, 바람, 스트레스 등으로 하루종일 사달린 모발에 편한 휴식과 영양을 주는 제품이다. 잠들기 전 간단히 발라주면 하면 된다. 로레알 퍼펙트 슬립 나이트 팩은 켈 타입의 밤 전용 슬리핑 제품으로 둔 화피가 굳어 쉘러이트 성분은 자연 배출시키고 지방 덩어리로 굳어지는 것을 막아준다. 잠자리에 들기 전 바르고 싶은 부위에 바르지만 하면 된다.

/*작성기자 ks@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containing multiple sections: '첨단월계공인중개사', '금부부동산컨설팅', '매일부동산', '한솔공인중개사사무소', '정원공인중개사', '에이플러스 부동산컨설팅', '에셋코리아 부동산컨설팅-정기유법부사 법원경매'. Each section lists various properties for sale or rent with details like location, size, and price.